

갤러리 색즉시공



나비처럼

나비의 날갯짓 하나에 온 우주가 관여했듯이  
마음 하나, 생각 하나가 나만의 것일 수 없는 일  
빛나간 마음 하나, 뒤늦은 생각 하나가  
언젠가 너와 나를 아프게 하리라.

하나절 적시는 햇살에 억겁의 시간이 관여했듯이  
지금 옮기는 발걸음 하나도 그냥 걸을 수 없는 일  
아득한 시절에 시작된 걸음 끝에서 서 있는 것이니  
법을 향해 걷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언젠가 아프리라

어느 날, 선사가 찾아낸 '각(覺)' 자가 문자가 아니듯이  
오늘 본 것, 들은 것만으로 내일을 살 수 없는 일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왔음이니  
법당 앞을 나는 나비처럼 우연이라도 법에 다가갈 일이다.

사진 · 글=박재완 기자

“맑은 내 생각 하나가 불국토 만든다”

신심을 고취시킨 경전읽기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좋은 구절들을 노트에 정리해 두는 것을 즐겨했는데, 불교의 여러 경전들을 대하고 나니, 불경처럼 주옥같은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은 없는 것 같았다. 불경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불교를 만난 보람과 의미는 충분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경전들마다 고구정녕 밝혀주고 있었다. 경전을 읽고 있으면 영동한 보석들이 무수히 날마다 내 삶으로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여는 가정법회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공부한 것이 부처님의 일대기였다. 2천6백 년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한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에서 부처님 일대기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불교에 입문한 분들에게 경전을 읽기 전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공부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야 경전 속의 부처님 말씀이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한 부처님은 인간과 격이 다른 신이나 영인이 아닌, 오직 '깨어 있는 분'이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부모 밑에서 성장했고, 인간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다. 나는 2600년 전에 일어났던 불교가 각각의 종교임에 마음이 끌렸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항상하지 않고 변화하니, 고정된 실체가 없음에 깨어 있을 때 고통이 소멸된다는 진리를 표명하고 있는 종교였다. 이러한 진리에 눈 뜨면 좋고 싫을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을 여의고 자비와 지혜가 솟아남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였다.

부처님일대기를 공부한 다음 법사스님을 모시고 30여 명의 회원들이(법화경), (승만경) 등을 공부했는데, 경전 공부를 통해서 올곧은 신심을 키우게 되었고 신심을 바탕으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내 생각 하나가 맑고 깨끗하면 세상은 그만큼 정화되고 불국토가 되리라'고 본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성불한다. 단지 이르고 늦음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선언한(법화경)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끝내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대하겠다는 서원도 세우게 되었다.

'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금강경)을 통해서서는 무아를 배웠으며,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고 다심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설한(원각경)을 통해서선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一)'을 배웠다.

관자재보살이 물질과 마음이 비어 있음을 깨달아 모든 고통과 아픔, 의심과 분노에서 해방되었다는(반야심경)의 핵심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 기쁨이 여여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를 이해하는 기쁨이 그 어떠한 기쁨과도 견줄 수 없는, 진리를 경험하는 환희로움을 누리게 하고 싶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사경할 때는 염불을 지속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곧 기적이요, 감사함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계율, 즉 도덕적인 생활이 청정 도량을 이루고, 자비로움으로 청량함을 얻으며, 염불로 정도를 이루고, 지혜로 영원한 안락을 얻는다는(천수경)의 구절이 가슴 깊이 다가온 날도 있었다. 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으니 삼보님과 천룡들이 이 땅에 강림하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첫 공부는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 알아야 말씀' 절실히 들려

신다는 구절을 읽으면서서는 마음은 물론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하늘도 도와준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집안을 청결히 하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경전을 읽으면서 신심을 다지던 가운데(42장경)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세상에는 하기 어려운 일 20가지'를 보고는 이 스무 가지만 잘 실행한다면 하더라도 큰 공부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메모해 두었다.(42장경)은 근본불교의 사상을 대변하는(유교경), (위산경)과 더불어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하나로 꼽힌다. 그만큼 불교의 핵심교리를 잘 담고 있어서 입문서로 널리 애독되고 있는 경전이다.

(42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는 하기 어려운 일 20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가난하면서 보시하기 어렵고 / 부귀하면서 도를 배우기 어렵고 / 목숨을 버려 도를 구하기 어렵고 / 부처님 세간에 나심을 만나기 어렵고 / 애욕을 참고 욕심을 떠나기 어렵고 / 유쾌한 것을 보고 구하지 않기 어렵고 / 권세를 가지고 세력으로 군림하지 않기 어렵고 / 수모를 당하고서 성내지 않기 어렵고 / 일을 당하여 무심하기 어렵고 / 널리 배워 깊이 공부하기 어렵고 / 처음 배우는 사람을 가벼이 하지 않기 어렵고 / 아만심을 버리기 어렵고 착한 벗을 얻기 어렵고 / 도를 배워 깨달음에 들기 어렵고 / 바깥 경계를 당하여 동하지 않기 어렵고 / 사람의 근기를 알아가 트침을 말하기 어렵고 / 마음을 항상 평탄하게 지니기 어렵고 / 시비에 빠져들지 않기 어렵고 / 좋은 방편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읽고 노트에 내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 나 개인은 물론 공부방 도반들과 함께 실천하고자 했던 것들이기에 사경을 하는 심정으로 써 놓았고, 자주 읽으면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봐도 많은 부분을 실천했다고 감히 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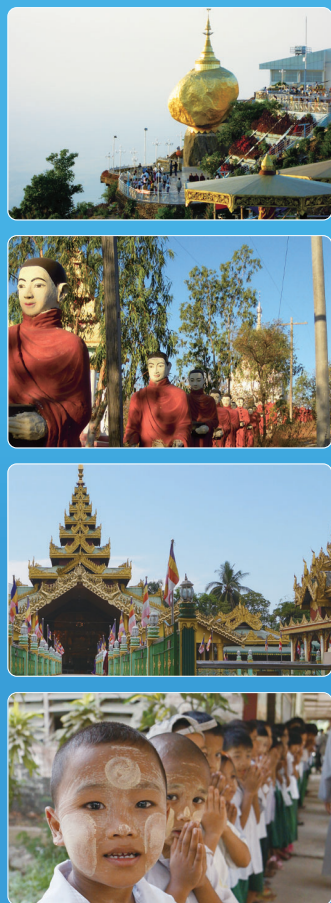
내일 먹을 게 당장 없더라도 도와줄 사람을 보면 즉시 보시할 것 / 제 아무리 배부르고 등 떠슴다 하더라도, 나아가 더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 것 / 도를 구하는 일을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절박한 일로 여길 것 / 오탁약체에 살며 진리를 만나기 어려우니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 것 /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가족이나 이웃에 집착하지 말며 그들에게 어떤 대가도 구하지 말고 도를 것 / 재미 있는 것을 보아도 중심을 잃지 말고 그것 또한 무상

함을 알고 취하려고 하지 말 것 / 남보다 후시라도 좀 더 많은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군림하려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나에게 온 것이니 나누어 쓰려 할 것 / 어느 누구에게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 일이 나로 인해 온 것임을 알고 인욕할 것(인욕이 만 가지 덕이 됨을 잊지 말 것) / 나를 내세워 시비를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생기나니 어떤 일 앞에서도 무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다문(多聞)이면 지혜가 증가하여 성불하리라는 서원을 잃지 않는다 하였으니 널리 배우고 깊이 공부하는 일에 힘쓸 것 / 배움이 없는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이끌어 그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울 것. 나이, 성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성장을 돕는 선지식임을 잊지 말 것 / 내가 무엇을 잘 안다거나 잘 낫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 것. 아만심이 좋은 인간관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잊지 말 것 / 착한 벗을 가까이 해서 배우고 또 배울 것. 청량한 도량, 훌륭한 스승, 좋은 벗이 나의 공부를 이루는 데 절대적 존재임을 잊지 말 것.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도를 배워 "일체는 내 마음이 만든다"는 '일체유심조'를 깨닫는 것이며, 만물이 한 뿌리 한 생명임을 깨우치는 깨달음을 얻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 것 / 어떠한 기쁨,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도록 수행할 것 / 천차만별인 사람들의 환경과 성품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진리를 말 하고 전할 것 / 어떠한 경계에서도 마음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이 수행임을 잊지 말 것 /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도임을 잊지 말 것 / 일을 하는 데 좋은 방편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키울 것.

여여회는(42장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둔 이 다짐들을 실천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장이었다.

(여여원 원장)

마하연 투 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고) 5일 699,000부터  
(양곤 바간 헤호) 5일 1,290,000부터
-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1,090,000부터
-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1,290,000부터
-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899,000부터

해의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 양곤 바간 헤호 5일..... 요금문의
-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요금문의
-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 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 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 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 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중국·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헤거 두손모음